

“‘예술의 길’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 상상과 축제의 무대”

호남예술제 70년

〈6〉호남예술제를 빛낸 예술가 - 황영성 화백

중학교 시절 예술제 참가 입상… 남도 현대화단 거목 성장

“호남예술제 고유 정체성과 시민들 소통으로 더욱 발전하길”

“호남예술제는 예술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상상과 열정의 무대입니다. 당시 참가 경험은 예술의 길을 정진할 수 있게 한 버팀목과도 같았죠. 돌아보면 아득하지만 그 때의 감동과 기억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60년 화업을 이어온 황영성 화백은 호남예술제가 배출한 대표 작가다. 중학교 시절 예술제에 참가해 입상했으며 후일 그는 남도 현대화단의 거목으로 성장했다. 또한 남도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예술가로 입지를 다졌다.

평생 캔버스를 마주하며 살아온 그에게 호남예술제는 있을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사실 일평생 예술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남다른 결의와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아니 어쩌면 무모한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50년대, 60년대 여건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열악했다. 지난한 여정 속에서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며 정진해온 원로 예술가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남도 예술, 현대 예술은 발전할 수 있었다.

얼마 전 황 화백을 잠시 만날 기회가 있었다. 예전만큼은 건장한 모습은 아니었으나 특유의 친근함은 여전했다. 조곤조곤 건네는 나지막한 말에는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사유 등이 담겨 있었다.

이전에도 인터뷰를 할 때면 황 화백은 호남예술제에 대한 단상이나 기억들을 풀어내곤 했다. 그때마다 열서니 살 소년 같은 천진한 표정의 얼굴에는 사람 좋은 미소가 어렸다. ‘예술가와 작품은 다르지

않다’는 말이 떠올러지는 모습이었다.

그는 호남예술제가 70년을 맞았다는 사실에 대해 “예술제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작품 발표회 무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특히 호남예술제는 오늘날의 광주를 예향(藝鄕)이라는 브랜드로 업그레이드시킨 가장 큰 단초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예술 꿈나무들의 발길을 통해 광주 예술, 나아가 호남 예술을 견인해왔다”며 “미술 외에도 클래식, 문학,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꿈나무들에게 등용문 역할을 해준 것은 그 자체로 가치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황 화백의 그림은, 한 편의 동화처럼 신비롭고 순수한 이미지가 특징이다. 평범한 듯 비범함이 깃든 작품들은 일견 무질서해보여도 나름의 정교함을 지니고 있다.

그림을 하나의 주제로 요약한다면 ‘가족’이다. 그는 왜 생애적이며 원초적인 가족에 그토록 전착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그림을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무친 그리움은 그림을 그리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 길을 걷게 한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1941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황 화백은 6·25 당시 고향을 떠나 광주에 정착했다. 그의 그림인생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이후 조선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65년 나주 영산포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이후 1967년 국선 입선을 계기로 이후 6차례 특선과 1973년 국전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1991년에는 제25호 문테카를로 국제회화제 특



황영성 화백에게 학생 때 참가했던 호남예술제의 기억은 예술 인생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다. 지난 2023년 도립미술관 전시 당시 포즈를 취한 황 화백(왼쪽). 가족의 의미와 범주를 확장한 작품 ‘가족’.

별상을 수상하는 등 1990년대 이후로는 국내를 넘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1993년 금호미술상을 비롯해 2004년 이인성미술상, 2006년에는 황조근조훈장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에서 작가적 역량을 평가받았다.

언급한 대로 황 화백의 그림을 관통하는, 그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주제는 ‘가족’이다.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원초적인 고향을 못 잊어 했다. 지난 2023년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 ‘황영성 초대전: 우주 이야기’는 그의 예술인생을 집약한 전시였다. 회화를 비롯해 설치, 사진, 영상, 아카이브 등 모두 110여 점의 작가의 예술인생을 반추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그 가운데에는 자신이 왜 ‘가족’ 이야기에 천착하는지를 소개하는 친필원고도 있었다. 작가의 깊은 내면에는 고향을 떠나오던 당시의 ‘소년’이 웅크리



고 있었다. 소년은 인생 만년에 이르러서도, 하늘나라에 가야 할 날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음에도, 여전히 사무치게 고향을 그리워했다.

“나는 가족이란 단어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의 작업의 주제도 가족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의 그림을 30여 년 그려온 것 같다. 처음에 가족에 대한 나의 인식은 그리움이었던 것 같다. 전쟁과 가난이 빼앗아간 나의 가족,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었다. 어린 시절 골목길 담 너머로 불그스름하게 따뜻하게 비추어오는 창문의 불빛 안에 그려지는 어느 가족들의 모습을 그리워했다. 그래서 내가 살았던 초가집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속에 오손도손 살아가는 가족을 그렸다. 부부와 아이들, 소, 닭, 개들이 있고 초가지붕 너머로 뒷동산과 거기에 걸려 있는 초승달이 내 가족 이야기의 주인공들이다.”

황 작가가 천착했던 ‘가족’이라는 주제는 그 의미와 범주가 다변화된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쩌면 그것은 수구초심(首丘初心)과 같은 의미일 게다. ‘머리를 구름을 향해 두는 마음’이라는 뜻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가족의 형태가 다변화될지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의 그림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다시 쫓겨세워야 할 것은 다름아닌 ‘가족’의 의미와 사랑이다.

한편 황 화백은 마지막으로 호남예술제 미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애정어린 조언을 했다. 그는 “70년이라는 시간을, 한 번도 중단 없이 달려온 의지와 역사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호남예술제가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트렌드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토대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베토벤과 프로코피예프가 빚어낸 ‘대조’의 선율

광주시향, 6월27일 광주예술의전당

장엄함과 서정, 고전과 현대가 한 무대에서 맞닿는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제396회 정기연주회 ‘Contrast’를 오는 6월 2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지휘자 이병욱, 피아니스트 임주희가 베토벤과 프로코피예프의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대조(Contrast)’라는 주제에 맞게 시대와 양식이 뚜렷하게 교차하는 두 거장의 작품을 통해 음악이 품을 수 있는 감정의 스펙트럼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연주자의 문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황제)’으로 열린다. 장엄하고 위풍당당한 분위기 속에 치밀한 구성미가 어우러진 이 곡은 도입부에 피아노 독주가 강렬하게 등장하며, 당시 협주곡 형식의 통법을 과감히 깨뜨린 혁신적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3악장에 걸쳐 펼쳐지는 다채로운 변주는 베토벤 특유의 영웅적 정신과 낭만적 감정이 더해져 장대하고도 드라마틱한 음악 세계를 펼친다.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이어지는 무대는 프로코피예프가 남긴 마지막 교향곡, ‘교향곡 제7번’. 1952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소비에트 체제의 억압 속에서 예술가로서의 고뇌와 절제된 감정을 드러낸다. 표면적으로는 유화적인 어법을 피지만, 그 속엔 격렬한 내면의 흔들림과 삶의 균열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서늘한 듯 따뜻한 선율, 단순한 듯 깊은 감정의 흐름은 앞서 연주되는 베토벤의 장엄한 협주곡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대조(Contrast)’라는 연주회의 주제를 부각시킨다.

협연자로 나서는 임주희는 9세에 러시아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세계무대에 데뷔한 이후, 서울시향, 도쿄 필하모닉,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주목받아온 연주자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카메라타 RCO’ 실내악의 진수를 만나다 7월 4일 ‘ACC 슈퍼클래식’

‘카메라타 로열 콘서트헤바우(CAMERATA RCO)’는 세계 최정상급 실내악단이다.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로열 콘서트헤바우’의 핵심 단원들로 구성됐으며, 섬세한 화음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완벽한 사운드로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세계적 명성을 지닌 실내악단의 수준 높은 연주를 들을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슈퍼클래식’ 일환으로 ‘카메라타 로열 콘서트헤바우(CAMERATA RCO)’ 무대를 마련했다. 7월 4일 오후 7시 30분 ACC 예술극장 극장1.

카메라타 RCO는 고전과 낭만을 비롯해 현대 작곡가의 작품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실내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멘델스존의 ‘클라리넷, 바셋 호른, 그리고 현악을 위한 협주곡 Op. 114’, 니노 로타의 ‘9중주’, 브람스의 ‘세레나데 제1번 D장조 Op.11’ 등 관악과 현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세계 정상급 오케스



카메라타 RCO 단원들.

〈ACC재단 제공〉

트라의 유려한 음색과 실내악 특유의 섬세한 앙상블이 조화를 이루며,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이 11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무대는 ‘세계 1위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를 한 발 앞서 실내악으로 만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채환 ACC재단 문화예술사업팀장은 “관악기와 현악기가 어우러진 소규모 편성 속에서도 카메라타 RCO 특유의 정교하고 깊이 있는 연주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ACC재단 누리집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리움… 그리고 설레임’

광주·전남여성작가회 정기전

오늘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늦봄과 초여름 사이, 시간이 빠르게 줄담음치고 있다. 성하의 계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떠나가는 봄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그리움”과 ‘설레임’을 주제로 한 전시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리고 있다. 28일까지 진행되는 광주·전남여성작가회(회장 김순정) 제41회 정기전의 주제는 ‘그리움… 그리고 설레임’.

섬세하면서도 활달하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현한 작품들은 만만찮은 내용이 느껴진다. 41년, 불혹을 갓 넘긴 시간만큼 작가들은 어느 것에도 흔들림 없이 저마다 창작에 매진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40여 명의 회원들의 작품이 출품됐다. 저마다 개성과 독특한 화풍을 지닌 작가들의 작품에는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가치,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 있다. 떠나는 봄이 아쉬고 그림기도 하지만 다가올 여름에 대한 설렘을 투영한 작품들도 있다.

각각의 작품들은 바람, 전설, 꽃 등 자연을 모티브로 한 것도 있고 행복, 삶의 방법 등 다소 사유적이며 철학적인 의미를 투영한 작품들도 있다.

김순정 회장은 “40여 명 회원들이 다양한 작품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그림속에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며 “예술과 일상을 잇는 또 하나의 전시



김순정 작 ‘꽃들의 축제’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강숙자, 강은주, 고윤숙, 고정희, 국막례, 기옥란, 김귀덕, 김미영, 김민, 김순정, 김영순, 민명화, 변경섭, 이경옥, 이신숙, 이영범, 이영실, 이인호, 이정주, 이종숙, 임경옥, 정난주, 조순현, 주미희, 최강희, 추순정, 한경희, 한남순, 함영순, 황경숙 등이 참여했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는 “40여 명의 회원 작가들이 서로에게 자극과 영감을 주면서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며 “회원들의 빛나는 성취를 성원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음악·영상·미술·웹툰 등 ‘범창작자 정책협의체’ 출범

음악, 영상, 웹툰, 웹소설, 사진, 미술 등 국내 주요 분야의 창작자·관리자 단체가 참여하는 ‘범창작자 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지협)는 최근 서울 강서구 한음지협 본부에서 범창작자 정책협의체의 첫 간담회가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창작자와 관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형성 과정에서 창작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야별 창작자 단체 간 연대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번 협의체에는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실연자관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디지털콘텐츠작가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등 총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연합뉴스